"Fucking USA"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죽은 故 신효순, 심미선 추모 1주기가 가까워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지 20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은 이의 한은 풀리지 못하고, 미군은 이 땅을 버젓이 차지하고 앉아 한반도를 겨냥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13일, 다시금 광화문을 가득 채울 촛불로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나가야할 것입니다.

故 신효순, 심미선 추모 1주기가 눈앞에 다가온 이 때, 우리가 꼭 알아야할 것, 그리고 함께 실천하고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가 그렇게 가슴아프게 죽어간 이후, 수없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Fucking U.S.A", "Fucking U.S.A 2"가 그것입니다.
지난해 초 오만한 미국의 어이없는 심판으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을 뺏긴 후, 미국에 대한 분노로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에 깔려죽이고서도 뻔뻔한 미소를 짓는 미군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부시와 주한미군에 대해 분노했고, 살인미군 처벌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Fucking U.S.A" 라는 말에는, 우리가 모르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uck"이라는 단어에는, '성교하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교하다' '강간하다''윤간하다' 등의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욕'으로 별 의미없이 쓰이는 것 같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 성에 대한 폭력적 의미를 담고있는 욕설인 것입니다.
오만한 부시에게, 뻔뻔하기 그지없는 살인마 주한미군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표현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의미를 담고있는 욕설'이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Fuck"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를 잘 모르고 단순한 욕으로 쓴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확히 그 뜻을 알고, "Fucking U.S.A"와 "Fucking U.S.A 2"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노래가 "Fucking U.S.A"인데 어쩔 수 없이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성과 성에 대한 폭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표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율이 포함된 짧은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있던 노래 중 "탱크라도 구속해" "또라이 부시" "이젠 나가주세요" 등의 노래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Fucking U.S.A" "Fucking U.S.A 2"를 직접 만들고 불렀던 분들에게 얘기드립니다.
그 노래들을 만들고 공연했던 애초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제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6.13 故 신효순, 심미선 1주기 추모대회에서는 "Fuck"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노래나 구호, 피켓 등을 쓰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덧붙여, 부시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매개로 "씨발"이라는 욕설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씨발"이라는 욕설은 "Fuck"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씹+할'으로 유래된 이 단어에서, '씹'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결국 "씨발"이라는 단어는 "Fuck"과 마찬가지로 '성교하다' '강간하다'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설 또한 위와 같이 구호나 피켓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6월 13일, 100만이 모인 촛불의 광장에서 만납시다!!!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